

## “시리얼, 더이상 서민 음식 아냐”



▲ 한 마켓에서 고객이 시리얼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shutterstock

“고물가시대 저녁식사로 시리얼 어떤가요. 가격이 괜찮거든요.”

18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지난달 시리얼 제조사 켈로그의 게리 필닉 최고경영자(CEO)가 CNBC에 출연해 이 같이 발언하자 미국이 들끓었다. 인플레이션이 둔화에도 식품 물가는 치솟아 저소득층 중심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식품 회사 CEO의 발언이 분노를 자극한 탓이다.

뉴욕시 퀸스에 사는 한 40대 주부는 “저녁에 고기도 못 먹는 우리를 놀리는 것 같다”며 “문제는 시리얼 가격도 한 박스에 10달러가 넘는다. 시리얼에 곁들일 우유, 과일 값까지 생각하면 그것도 비싸다”며 고개를 저었다.

켈로그는 물가가 급격하게 오른 2022년부터 '저녁에 시리얼을 먹자'는 광고 캠페인을 진행해 왔고, 필닉 CEO의 발언도 회사 캠페인 연장선상에 있었다. 그럼에도 소비자들이 분노한 것은 3년째 이어지는 식품 고물가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최근 미 농무부(USDA)발표에 따르면 2022년 미 가구 가처분 소득에서 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11.3%로 1991년(11.4%)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앵겔지수가 30년 전으로 회기한 셈이다.

미 농무부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유지류의 가격이 9%로 가장 빠르게 올랐고, 설탕과 과자가 8.7%, 시리얼과 베이커리 제품이 8.4% 급등했다. 시리얼은 2022년에도 13% 올랐었다.

## 낙태권 폐지 후 오히려 낙태 증가

미국의 연간 낙태 건수가 10여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9일 '연합뉴스'가 CNN 등을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낙태권 옹호단체인 미국 구트마허 연구소는 이날 공개한 보고서에서 2023년 한 해 동안 미국에서 102만6천690건의 낙태가 이뤄졌다고 추산했다. 이는 미국 가입기 여성 1천명 중 15.7명꼴로 낙태가 이뤄졌다는 의미이다.

미국의 연간 낙태 건수가 100만 건을 넘어선 건 2012년 이후 첫 사례이며,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기 결정 이후 낙태를 금지한 보수 성향 14개 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만 따져본다면 25% 이상 낙태 건수가 늘어난 셈이 된다고 보고서는 짚었다.

이번 조사는 공식적으로 낙태시술을 제공하는 미국 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의료체계 바깥에서 이뤄지는 낙태나 낙태가 금지된 주에 비공식적으로 반입된 경구용 낙태약에 의한 낙태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2023년 한 해 미국에서 이뤄진 실



▲ 미국의 연간 낙태 건수가 201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진=shutterstock

제 낙태 건수는 조사된 것보다 훨씬 많을 수 있다고 구트마허 연구소는 지적했다.

한편, 2022년 미국 연방 대법원은 임신 6개월까지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1973년 나온 로 대 웨이드 판례를 폐기하고, 낙태권 존폐의 결정 권한을 각각의 주로 넘기는 판결을 했다.

## 작년 미국 살인 범죄 13% 감소

미국 국민들이 체감하는 지난해 범죄 발생은 과거보다 높아졌으나, 실제로는 살인 등 주요 범죄 발생이 전년보다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뉴시스'는 미 연방수사국(FBI)이 전날 공개한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미국 내 살인범죄는 전년 대비 13.2%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폭력은 5.7%, 강간은 12.5%, 강도 범죄는 4.7%, 방화는 8.2% 감소했으며 중대상해와 재산범죄도 각각 4.8%, 4.3%씩 줄었다. 다만 차량절도는 1년 전보다 오히려 10.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워싱턴DC와 뉴욕 등이 포함된 동북부 지역에서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살인 범죄는 17.9% 줄었고 폭력(8.1%)과 강간(16.1%), 강도(7.6%) 감소를



▲ 뉴욕 경찰들이 총격 사건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사진=AFP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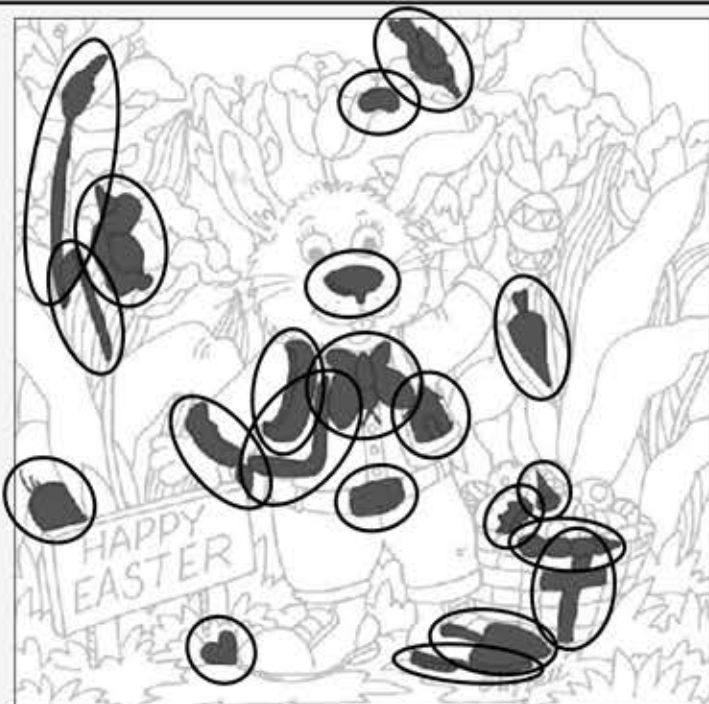
도 평균치를 상회했다. 하지만 차량 절도 범죄는 무려 37.8% 증가했다.

이번에 공개된 수치는 미국 인구의 약 82%를 관할하는 13만여개 법집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취합한 것이다.

다만 공개된 자료는 미국 국민들의 체감과는 다소 괴리가 있어 보인다. 지난해 12월 겐럽이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77%의 응답자가 범죄 발생이 더 많아졌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범죄 동향을 연구하는 제프 애서 전 중앙정보국(CIA) 분석가는 “사람들은 위험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식이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다”면서 미디어가 폭력과 무질서를 부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 숨은그림찾기 정답



## 성공을 향한 여정, KIM & CHOI 회계법인과 시작하세요!

지난 40년간 가든그로브에서 지역 한인 비즈니스와 세무관련 업무를 자문하고 수행하며 함께 이민사회의 발전과 역사에 동참해온 이광연 회계법인이 KIM & CHOI 회계법인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ACCOUNTING	TAX	CONSULTING
회계업무 급여 관련 예산/재무 계획 각종 세금 관련	개인/회사 세무 (타주포함) 인컴텍스/ 자산계획/관리 IRS, FTB, CDTFA, EDD 세무 회계 감사 해외자산 FBAR-Report	회사 설립 사업 운영 전략 재무/회계 상담 사업 가치 산정 각종 거래 관련



**Yongsuk (Bob) Kim, CPA**  
-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 Member of Gatto McPerson, CPAs, 25 yrs.

**Sue Choi**  
- California State Univ, Fullerton  
- Antonios K. Lee, CPA, P.C., 12 yrs.

T. (714) 539-6444 | 9828 Garden Grove Bl. #213  
F. (714) 539-9261 | Garden Grove, CA 92844  
email: info@kimchoicpas.com